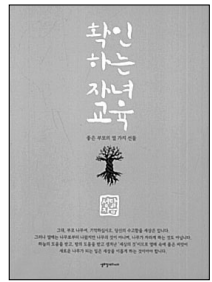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열 가지 선물

성담스님의 확인하는 자녀교육

성담 스님 지음 | 셀프컬처리서치 펴냄 | 1155천원



꼭 알아두어야 할 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더 먼저 생겼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학교이다. 한마디로 평생 졸업이 없는 학교다. 이 학교가 무엇일까? 저자 성담 스님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한다.

이곳서 최초이자 영원한 담임 선생님은 바로 엄마라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부터 엄마가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들어가며 아이는 배운다. 아버지 역시 살아있는 역사이며 평생의 멘토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자녀를 키워낼 방법을 밖에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세상에 초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이 초대할 자녀를 제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 책은 부모가 세상에 초대할 손님, 자녀를 모시고 대접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줄 수 있는 열 가지 선물을 알려줍니다. 이 선물로 당신이 초대할 손님을 제대로 대접할 때, 당신의 삶은 자신이 초대할 손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보통의 교육과 관련된 책이라면 부모가

원하는대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할 뿐 부모가 무엇인지 먼저 묻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를 잘 키워 내는 것은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모라면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라길 바라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 줄 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덕분에 존재함’을 제대로 깨우치면 우리가 소위 ‘나’라고 부르는 것이 사라진다. 행복하게 해야 할 자신이 사라지며 이미 행복한 자기를 발견한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더는 행복에 목매는 대신 행복을 나누며 세상을 이렇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성담 스님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늘 세상이 잘못됐다 고 불평하고, 하다못해 자신도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며 ‘힐링’이 유행인 세상에 성담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그 품은 뜻은 가히 ‘혁명’이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자기를 발견하면 삶을 대하는 사람의 개념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삶은 이제 부추하고 잘못되어 채우고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여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

어둠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어둠을 없애려는 생각과 행동은 그림자와 싸우는 개의 그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이에게 더는 자유라는 말조차 필요 없듯이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진

다. 이미 행복하기 때문이다. 성담스님이 사람들에게 간절히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삶의 진리는 삶에 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래서 성담스님은 삶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 삶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을 아끼지 않는다. 또, 삶을 열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정리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삶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멘토

행복 위해선 기술이 필요

“삶의 진리는 삶 속에 있어”

이러한 활동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명품이 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빛이 나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명품 말이다. 그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오래갈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벗기 전에 세상 곳곳에서 세상의 스승이 되어 사람들을 도울 이를 적어도 일만 명은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국사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도우려면 최소한 한나라의 스승이 될 역량과 성품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무엇이라 생각할까? 이에 대해 성담 스님은 스스로 불쏘시개가 되

겠다고 말한다. 가장 낮은 데서 사람을 돕겠다는 그의 의지이다.

또한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러야 한다’ 하고 늘 따지고 산다. 그러고 따질 수 없으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복도 기술이 필요하다.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말이다.

성담 스님은 행복을 위해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필수 행복기술 10가지를 정리했다. 자립심, 자존감, 인연, 좋은 습관, 대화의 기술, 상호존중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금산 효심사 주지인 성담 스님은 전국으로 행복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삶의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의 명쾌한 설명은 듣는 이가 즉시 깨닫는다고 하여 즉각(卽覺)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최근 제자양성을 위한 명품국사관을 완공했고 그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행복기술학교도 올 1월에 시작한다. 효심사 공식카페 cafe.naver.com/hyosimsa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l.com

저자 성담 스님은?

2012년부터 불교방송 BBS <마음의 향기, 5분 설명> 시작으로 방송활동을 해왔다. 이후 불교TV에서 <행복19지혜축제> <성담스님의 덕본입니다> <천안통>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저서로는 <행복119> <꽃피일이 떨어진 날>을 내는 것은 찬란한 아름다움이다 <내일은 없다> <당신의 길, 길 위의 당신> <미리하는 인생 공부> <확인하는 성공습관> <확인하는 자녀 교육> <확인하는 부자연습> 등이 있다.

이 아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어서 언제라도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한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더우면 더운 대로 좋은,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길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법륜 스님은 자기가 단도직입으로 살핀다면 인생살이가 절대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스님은 “지금 행복해야 한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 더 행복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수행해서 죽기 전에야 깨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고 전한다.

김주일 기자

수당시대에 탄생한 삼계교... 자장율사 등에 의해 신라로 전해져

삼계교 사상연구

법공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 3천원



불교 역사 속에서는 세상이 불안정하고 어지러울 때마다 말법사상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수당 시기에는 말법사이라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새로운 불교가 탄생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수나라 때 신행(信行, 540~594년)에 의해서 창시된 삼계교(三階敎)이다.

이 책은 삼계교이라 불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교학과 실천을 겸비한 뛰어난 종파였던 삼계교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실천에 대해 사상사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히 삼계교를 창시한 신행의 사상과 실천 및 활동이 후대까지 미치지 않았던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민중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실천행으로서 무진장원을 설립한 배경과 활동, 그리고 이러한 민중을 위한 혁신적 열풍이 자장과 신방에 의해 신라로 입수되어 어떻게 당시 한반도의 정치와 종교, 사회적 지형에 파급효과를 낳았는가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 민중성으로 인해 탄압을 받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삼계교가 당시의 문학과 예술, 특히 소설이나 미술사적인 분야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장들을 살펴보면 제1장 <삼계교와 정토교>에서는 우선 신행과 교류했다고 추정되는 도작 시대의 배경을 고찰하고 있다. 정토종을 정립한 도작은 신행과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의 약시피기(約時被機) 사상이 신행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역시 신행의 근기(機)에 대한 견해를 회감의 <균의론>과 관계가 있음을 논증한다.

제2장 <삼계교와 지장신앙>에서는 왜 삼계교가 ‘지장교’로까지 불리어졌는가를 개고 이래의 경전인 <지장심결경>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삼계교가 원하던 ‘말법관’에 의한 악종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종지가 <심결경>의 이념과 합치됨을 확인한다. 여기서 특히 삼계사신신라 신방과의 관계를 <삼국유사> 등의 자료를 통해 깊게 고찰함으로써 신라불교에 끼친 삼계교의 영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제4장 <삼계교와 유마경 사상>에서는 먼저 신행에 의한 <유마경> 계보의 관계를 지론종 남도파와의 계보로 파악하고 있

다. 또한 <유마경> <문수사리문질품>의 상악아정(常樂我淨)이 신행의 <신행유문>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들어, 그것이 실천적인 ‘무진장행’ 사상을 불러일으킨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삼계교의 정토를 <불국품>의 사상과 연결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제6장 <불교의 성명과 삼계교의 칠계불명경>에는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에서 음악의 역할을 검토하고, 불교의례의 하나로써 불경을 예송하고 죄과를 고백하는 참회의 의식이 삼계교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칠계불명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삼계교가 다양한 불교의례를 통해 민중들과 어떻게 친숙하려 했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고찰한다.

제7장 <신라불교와 삼계교>에서는 신라의 원광, 의상, 원효, 경흥 등의 활동을 통해서 신라불교에 끼친 삼계교의 영향을 사상적, 역사적으로 심도 있게 파고들고 있다.

먼저 원광과 신행과의 직접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점찰보’를 통해 신라불교가 삼계교 교의의 실천장으로서 활약

수나라 신행에 의해서 창시

민중의 구제 목적 실천행 강조

신라불교와 깊은 연관성 주목

한 것을 사상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상과 삼계교의 경우는 지론종 상주 남도파의 계보를 고찰하면서 그 연관성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으며, 원효의 경우는 그의 <금강삼매경>의 사상이 출가와 환속을 상관하지 않음과 더불어 삼계교의 보경설의 영향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으며, 원효의 <유심안락도>에 일원제의 극락왕생을 인정한다는 것에서 삼계교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한다.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한국불교사와의 관련으로, 신라불교가 삼계교와 관련된 것에 본격적으로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신라불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보다 넓은 역사적, 사상적 지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삼계교는 한국불교계에선 이름조차 다소 낯설게 보이지만, 중국불교사 속에서 최초로 민중을 지향하고 불교의 이념을 통해 깊게 고찰함으로써 신라불교에 끼친 삼계교의 영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김주일 기자

“자기의 문제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 스님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 2천원



“혼자 있으면 혼자여서 좋고, 둘이 살면 둘이 살아서 좋고, 애가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이 돌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 하면서 호미를 가져와서 돌맹이를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오늘 걸려서 넘어진 것이 잘 넘어진 것이 됩니다. 안 넘어졌으면 그 돌맹이를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넘어진 것이 도리어 복이 되었어요. 이것을 전화위복이라

고 합니다.”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 법문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나온 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책은 참자유, 참행복을 찾으려면 삶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쳐야 한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선사들과 이웃들, 법륜 스님의 수행담을 통해 친근하게 전한다.

2012년 국내 300회 강연뿐만 아니라 2014년 세계 100회 즉문즉설 강연을 통해 전 세계로 직접 찾아가 사람들의 인생 고민을 직접 만난 법륜 스님. 진리의 길,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 책 <지금 여기, 깨어있기>를 펴냈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법륜 스님 자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깨달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부처님의 삶, 선사들의 깨침의 이야기, 이제 법륜 스님 자신의 수행담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음을 차려다.

“네가 누구냐?” “왜 네 것이냐?”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못한다. 지금 이대로도 우리는 행복할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는!’ 하고 살았지만 정작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못한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내 거야!’ 하고 살았는데 ‘왜 네 것이냐?’ 라고 물으면 모른다.

법륜 스님이 전하는 수행담

생생한 인생 고민 해결법 제시

우선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점검하면 좋지만 어려우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고민거리가 대부분은 해결된다. 이제는 집중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

제 10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승가회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 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칭, 지장칭, 신중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연반, 구명시식.
중급과정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39위 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화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라니 작법, 범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칭, 목탁, 요령

-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개강일시 : 2015년 2월 7일(토요일) 오후 2시
- ◆ 수업 : 매주(금·토) 오후 2시 ~ 5시까지
-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TEL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조계종 승가불교대학 · 무파사 학장 일관 합장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애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낳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섭리인데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담음 등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기쁨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른 수행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깨달기 위해 수 십년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에너지를 백회와 송과체로 받아들이게 하여 7개의 치크라를 깨워 오장육부의 경락을 뚫어 마음의 눈 영안이 떠지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 드립니다.

기쁨의 변화를 통해 용기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고통체 (과거의 경험정보로 쌓아놓은 업식, 관념, 애고, 카르마) 무의식적인 몸을 지배하는 지동와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카르마 애고, 업식, 질병, 불행의 원인 현재의 인생입니다. 물질화된 업식을 정화하는 방법과 수행으로는 토남법 - 몸애고 근육과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에 무의식으로 자리잡은 물질화된 부정적인 정보를 몸 밖으로 토해내는 과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장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 ①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님과 불자분들
- ②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 ③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 ④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 ⑤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 ⑥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 ⑦ 병이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 ⑧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서 헤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⑨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⑩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 ◆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 ◆ 상담비용 : 5만원
- ◆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 ◆ 기업체, 신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 카페 : http://cafe.naver.com/dllbdlb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